



# 박스오피스 1위는? 극장가 ‘혼전양상’

외화 ‘로건’ vs 韓 ‘해빙’ 박빙... ‘콩’·‘신고질라’ 등 기대작 개봉 잇따라  
 ‘미녀와 야수’ 실사영화 눈길... 23일 ‘프리즌’ 등 한국영화 3편 동시 개봉

영화 ‘공조’와 ‘더 킹’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극장가에 ‘절대감자’ 없는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개봉한 한국영화 ‘조작된 도시’를 시작으로 ‘재삼’, 할리우드 영화 ‘23 아이덴티티’가 일주일 단위로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이어받은 뒤 현재 ‘로건’과 ‘해빙’이 1위 자리를 놓고 엇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신작 영화들이 매주 쏟아져 어떤 영화가 승자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예년의 경우 3~6월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한국영화 기대작들도 개봉 대기 중이다. 할리우드 SF블록버스터 ‘콩 : 스킵 아일랜드’와 일본영화 ‘신고질라’는 8일과 9일 각각 개봉한다. 김광과 고질라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괴수가 스크린에서 맞붙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작을 보면 김광이 우세하다. 역대 ‘고질라’ 시리즈는 국내에서 흥행을 거두지 못한 반면 2005년 12월 개봉한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은 423만 명을 불러모은 전례가 있다. 16일에는 월트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가 극장

가를 찾는다. 1991년 개봉한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골든 글로브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실사 영화로 제작된 이번 작품은 저주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가 사랑스러운 아가씨 벨을 만나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된다는 기존 줄거리를 그대로 가져오되, 웅대한 세트 붕괴를 한층 화려하게 만들었다. 말하는 chat과 춤, 움직이는 옷걸이 등을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벨 역을 맡은 에마 왓슨이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정연기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23일은 한국영화 3편이 한꺼번에 개봉한다. 한석규·김래원 주연의 ‘프리즌’과 손준주·장혁 주연의 ‘보통사람’, 김민희에게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간판을 내건다. ‘프리즌’은 교도소에서 왕 노릇을 하는 익호(한석규)의 지휘 아래 밤마다 교도소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돌아오는 죄수들의 이야기다. ‘연기산’으로 불리는 한석규의 악역 변신이 화제가 됐다. ‘보통사람’은 1980년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강

력계 형사 성진(손준주)이 나라가 주목하는 연쇄 살인사건에 휘말리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져 범민하는 여배우의 이야기로, 홍상수 감독의 팬들과 김민희의 연기가 공교롭게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늘피겨스’는 1960년대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의 숨겨진 천재 흑인 여성 3명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29일에는 임시완·진구 주연의 ‘원라인’이 대기 중이다. 평범한 대학생 민재(임시완)가 전설의 베테랑 사기꾼 장 과리를 만나 모든 것을 속여 은행 돈을 빼내는 신중 범죄 사기단에 합류해 펼치는 범죄 오락 영화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옮긴 ‘공각기동대 : 고스트 인 더 셸’(감독 루퍼트 샌더스)도 3월 말 국내 관객을 찾는다. 영화계 관계자는 “한국영화 대작들은 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 겨울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의 통상 한국영화 비수기로 꼽히지만, 영화가 괜찮다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점에 개봉해 장기 흥행을 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외증조부 행적 인지 못한 실수”

강동원, 친일파 논란에 사과문

배우 강동원(사진)이 자신의 외증조부에 대한 친일파 논란과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등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강동원은 소속사를 통해 낸 사과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외증조부의 미담을 들으며 자라왔고, 외할머니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셨기 때문에 외증조부에 대한 미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고 적었다. 강동원은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외증조부의 행적을 ‘예술’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한 시점에는 그분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어 “과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빠른 시간 내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저의 잘못이라 통감한다”고 적었다.

또 “제 외증조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게 됐다”며 “이번 일을 통해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고 또한 성해나가겠으며, 미약하게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동원은 한 영화전문 매체에 게시된 ‘강동원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자 포털 사이트에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합뉴스



# 다이나믹듀오 최자·설리 결별

연예계 대표 커플인 다이나믹듀오의 최자(37)와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23)가 결별했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두 사람이 헤어졌다”며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컬처도 “바쁜 스케줄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며 “함께 한 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결별은 2014년 8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던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들의 열애설은 2013년 9월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나이 차가 따돌감을 넘고 음악적인 장르가 달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던 두 사람은 최자가 분실한 지갑에서 둘의 스티커 사진이 공개되고 둘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최근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연인임을 인정했다.



최자·설리  
 이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데이트하는 사진을 스스로 없애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도 다이나믹듀오의 개코 부부와 동반 여행을 다녀와 결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안벽한 아내>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하숙집 딸들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유적도크스 가요1번지 55 TV쇼 진품명품 (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20 문화시색 (재)	55 닥터 365
2	55 가요무대 (재)	00 KBS 뉴스타임 10 1대100(재)	05 내꺼야 훌룩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까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25 MBC 일일특보 기획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신년특집 3일간의 여행, 마법의 공간 철석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 100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안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하숙집 딸들	10 특집 MBC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재)	35 동계 아시안게임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서해안유람기 위안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맛조각살찌게와 시금치결집>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07:45 출동! 슈퍼왕스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책대로 한다(재)
08:00 덩동명 유치원1~2	13:40 장수의 비밀(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50 그림을 그려요2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디비그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매혹의 보물섬 인도네시아 - 대자연은 품은 화산섬>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내 맘대로 산다 - 그녀들의 섬>
15:45 시계마을 타기투!	21:50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 - 할 수 있을까?>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글로벌 아홉 찾아 삼만리
16:30 두다다콩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책대로 한다
16:45 덩동명 유치원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거품이 맥주의 꽃인 이유는?>
17:15 연마 개투리	24:30 한국영화특선(하모니)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블리핑 배나나 농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2월 10일 췌이)
<b>子</b> 48년생 보이지 않는 뒷에 걸릴 수도 있다. 60년생 축적해 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더라도 결집월부터 치우려. 84년생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7, 31	<b>午</b> 42년생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기만 하느니라. 54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6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78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90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행운의 숫자 : 57, 81
<b>丑</b> 49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인 뿐이다. 61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73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85년생 그 어떠한 이익이 따르다 하더라도 정도가 아니라면 건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8, 16	<b>未</b> 43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55년생 소탐대실하지 마라. 67년생 새로운 차원을 향해 달려라. 79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91년생 굳이 지름길을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82, 24
<b>寅</b> 50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흥사를 비껴갈 수 있다. 62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74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86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03, 65	<b>申</b> 44년생 교육만 자체한다면 결과는 양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56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68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80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능히 버텨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70
<b>卯</b> 51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63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올 것이다. 75년생 화자정리 하는 법이다. 87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찮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21, 11	<b>酉</b> 45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한 요구된다. 57년생 방식한다면 급락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69년생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수도. 81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필코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68
<b>辰</b> 52년생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64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76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88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9, 94	<b>戌</b> 46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58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 일이다. 70년생 가급적이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82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4, 93
<b>巳</b> 53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65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77년생 불만하던 반대 시 뜰고쳐야 한다. 89년생 철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크게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66, 81	<b>亥</b> 47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59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71년생 상대의 이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83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풀어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49